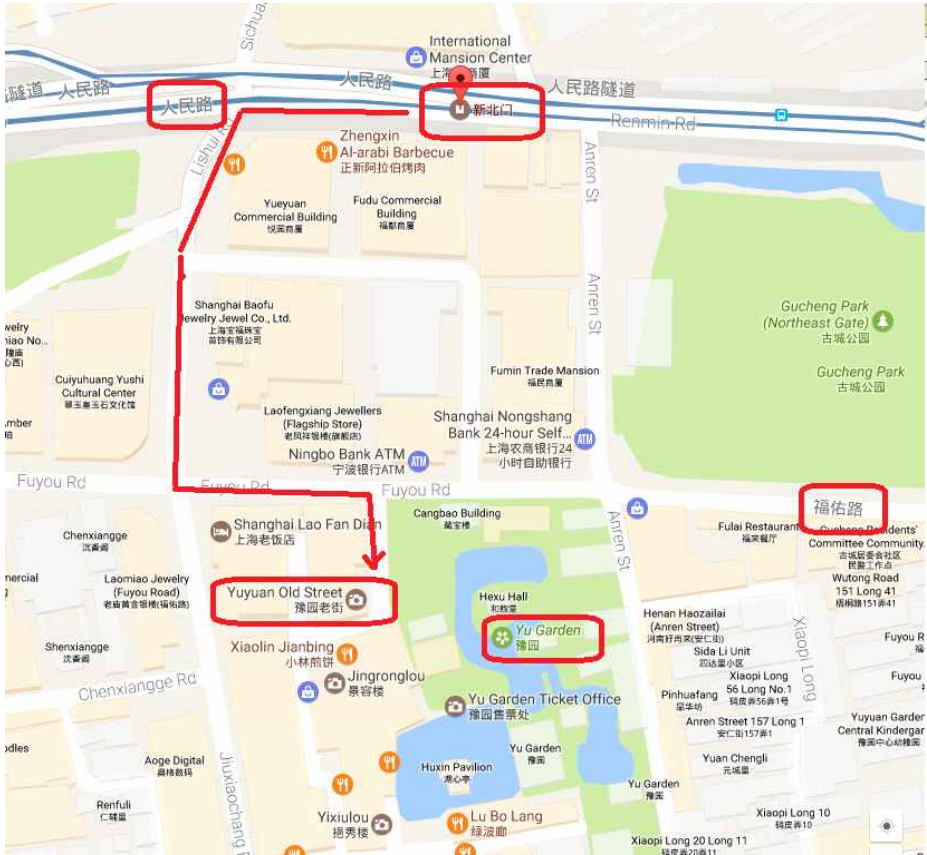


# 新北門



여행가이드 설명서를 보면 강해엿거리가 한국의 인사동 같은 느낌이 나는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실제 모습을 보니 입구에서부터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건물이나 관광객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무엇보다 중국만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다.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상해옛거리를 충분히 보지 못했다. 겉모습만 보면서 사진 찍는데만 시간이 다갔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유있게 돌아보고, 먹거리도 사먹고, 간단한 쇼핑도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더군다나 상해옛거리와 벽을 함께 하고 있는 '에원'주차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남경로로 향한다.

상해 한복판의 구옥들    황포강에서 바라 본 상해 전경....  
건물의 규모는 세계적이다. 그런데 외모와 달리 각 건물 속의 화  
장실은 영 원시적이다. 건물의 외모는 21세기에 맞춰 지어놓고  
그 내부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육,칠십년대의 모습이다.  
아직 개량안된 상해 한복판의 구옥들은 대부분 집안에 화장실이  
없고 매일 일정시간 차가 와서 종을 울리면 오물을 모은 통을 들  
고 나와 비운다. 산이 없는 도시 '상해' 그 넓은 땅에 지은 집의  
크기가 또 엄청나다.어떤 집은 방 하나에서 3층침대를 쓰는데 1  
층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2층 침대에선 엄마, 아빠가 그리고 3층  
침대에선 아이들이 잔다.에구에구 에구구구.....  
창밖엔 신 구옥을 가리지 않고 거의 집집마다 대나무에 가득 걸  
린 빨래가 만국기를 연상시키고...

상해의 옛거리 - 예원상업관광지역에 들어서서 관광객들이 본 것은 100~200년 전의 상해의 모습이라고 한다. 관광, 쇼핑, 오락, 문화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 거리는 이 곳만의 독특한 품미가 있다.



상해 최초의 은행, 연극장, 시장, 귀금속 등의 가게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이 발 가는 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이다.

200년 전 명청 시대의 옛 상점거리를 복원한 옛거리는 골동품점, 식욕을 돋우는 먹거리 시장, 과거 상해 최고의 찻집이 있던 호심정, 굽이굽이 아홉 번 꺾인 구곡교 등이 모여 있어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 색다른 감동을 주는 곳이다.





